

# 방언 조사와 연구의 의의

최명옥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1. 서론

일반적으로 '방언'이란 독립된 언어체계를 가진 한 언어의 변종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한국어방언이란 독립된 언어체계를 가진 한국어의 변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어의 변종인 방언은 한반도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는 일본과 중국에도 있고 멀리는 미국과 카자흐스탄에도 있다. 일본, 중국 등의 해외 거주 동포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대개 그곳으로 이주한 조상들의 말이 근간을 이루기는 하겠지만, 오랜 세월이 걸쳐 변화함으로써 새로운 언어체계를 가진 한국어의 한 변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어 방언은 연대를 알 수 없는 먼 옛날부터 분화와 통합을 거듭하면서 독자적으로 또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변해왔다.

한국어 방언은 1960년대까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사용되고 전수되어왔다. 그 시기까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농업이 주된 생계의 수단이었으며 단독 주택에서 대가족이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집 안에서는 부모와 조부모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집 밖에서는 이웃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랐다. 그러는 중에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사용하는 우리 고유어를

## 6 새국어생활 제13권 제4호(2003년 겨울)

습득할 수 있었고 그렇게 우리의 고유어는 한자어, 외래어와 함께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종래의 농업 중심의 사회는 점차 산업 중심의 사회로 바뀌었다. 그와 함께 지방의 젊은층이 대도시로 집중함에 따라 가족의 단위가 대가족에서 부모와 자식들만이 생활하는 소가족으로 바뀌었다. 도시의 가옥 형태도 개인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한국어 방언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7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조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정은 부모가 있기는 했지만, 부모가 생업에 쫓기는 실정이어서 자식들은 부모와 대화할 시간을 거의 가지지 못하였고 입시 위주의 교육 여건 때문에 교과서 위주의 학교 공부와 과외 공부로 문학이나 교양 서적을 읽을 여가를 가지지 못했다. 아파트라는 격리된 생활 공간 때문에 집 밖을 나와도 이웃 어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특히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됨으로써 농촌 생활과 판이한 양상을 가진 도시 생활자의 수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으며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 분야의 발달과 인터넷의 등장 그리고 수많은 오락 게임의 양산으로 청소년층과 젊은층들은 말을 하지 않고도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청소년층과 젊은층은 대체로 일상 생활어와 교과서 수준의 어휘 정도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전통적인 고유어는 대부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통적인 고유어를 물려 받은 노년층의 수는 줄어들었고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면 그러한 세대의 대부분이 이 세상을 떠날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언 조사는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그리고 방언의 연구는 또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2. 방언 조사의 의의

‘방언 조사’는 통신을 이용하거나 현지에 나가서 해당 지역의 언어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이다. 특히 현지에서의 방언 조사의 경우에, 그것이 가지는 의의는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방언 조사자가 가지는 의의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되는 방언이 가지는 의의이다.

### 2.1. 방언 조사자가 가지는 의의

먼저 방언 조사자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언 조사 방법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방언 조사 방법에는 조사 항목과 제보자의 선정, 질문과 전사 등이 포함된다. 이런 것을 제대로 수행하는 방법과 기술은 이론적인 이해만으로 습득될 수 없다. 그것들은 방언 조사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사이에 습득될 수 있다.

어떤 연구자가 공시 음운론적 연구를 목적으로 기존의 방언 자료집에서 조사 항목을 선정한 다음에 연구 대상 지역으로 가서 방언 조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 경우에 연구자는 조사된 자료로는 목적에 맞는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조사한 자료는 명사, 동사, 부사 등에 대한 방언형뿐이며 그것을 가지고는 공시적 음운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는 비로소 공시 음운론적 연구를 위해서는 곡용과 활용 즉 명사와 조사가 통합할 때의 방언형과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의 방언형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 이번에는 곡용과 활용에 대한 조사 항목을 선정한 다음 연구 대상 지역으로 가서 방언 조사를 한다고 하자. 그 지역이 충청남도의 각 군이고 조사 항목으로 표준어 ‘술(鼎)’이 주격 어미 ‘-이’나 특수 어미 ‘-도, -만’과 통합하는 것이라면, 조사된 방언형은 ‘소시,

소또, 손만'이 될 것이다. 그는 이 자료를 분석하여 어간의 기저형은 '숯'이며 어간말 'ㅅ의 평과열음소(ㄷ)화', '경음소화', 'ㄷ의 비음소화'와 같은 음운 규칙을 설정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제보자가 표준어 '술(鼎)'이 처격 어미 '-에(서)'와 통합할 때에는 '소티(서)'로 발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자. 이 사실은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의 곡용 조사에서 그가 명사와 주격어미 '-이'만을 조사 항목으로 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며 주격어미 '-이'와 함께 처격어미 '-에'를 반드시 조사 항목으로 정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소티(서)'는 표준어 '술(鼎)'의 기저형이 대부분의 충청남도의 각 군에서는 '숯'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소{ㅅ-ㅌ}'이라고 수정하게 한다. 그리고 '소또'와 '손만'의 음운과정 중 첫째 음운과정을 어간말 'ㅅ의 평과열음소(ㄷ)화'라고 해야 할 것인지 어휘화된 이형태 'ㅌ의 평과열음소(ㄷ)화'라고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제보자 선정에서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된다. 예정된 조사를 끝내고 난 뒤에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몇 대째 여기서 살고 있습니까?”하고 물었을 경우, “출생은 다른 데서 했지만, 세살 때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답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외지에 나간 경험이 있습니까?”하고 물었을 경우, “젊었을 때 10여 년간 도시에 나가 장사를 했다”는 답을 들었을 때, 그리고 “부모님 고향은 어디니까?”하고 물었을 경우, “아버지는 이곳이 고향이지만 어머니는 고향이 다른 도다”라거나 “부모님은 모두 고향이 이곳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다”라는 답을 들었을 때 조사된 자료를 무효로 하고 다시 조사해야 한다. 이런 시행착오로부터 제보자는 실제 방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방언 조사에서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질문이다. 구체적인 사물은 그것이 현지에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여 “이것은 무엇입니까?”하고 질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지에 없으면 장황하게 설명해야 한다. 더욱이 조사 항목이 추상적인 것이라면 질문하기가 참으로 난감

하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고 그에 대한 해결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항목을 조사하려면 미리 그에 대한 그림이나 사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

동사의 활용형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은 더욱 막연하다. 하나의 예로, 표준어 동사 ‘먹-(食)’에 어미 ‘-으면’이 통합할 경우의 방언형을 조사한다고 하자. 먼저 동사 어간 ‘먹-’에 대한 방언형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먹-’에 대한 사전적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설명이 쉽지 않다. 방언 조사의 질문은 매우 신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험이 축적된 다음이다. ‘먹-’의 경우에, 사전적 설명을 통한 질문보다는 “밥을 마신다고 합니까?”와 같은 질문은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준다. 그러면 제보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밥은 마신다고 하지 않지?”와 같이 반응한다. 그때 그러면 “밥은 어떤다고 합니까?”하고 물으면 “밥은 {먹는다, 묵는다}고 하지”라고 답할 것이다. 한편 표준어 어미 ‘-으면’에 대한 방언형은 따로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보다는 실제 조사 전에 제보자와의 담화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어간 ‘먹-’에 어미 ‘-으면’이 통합하는 경우를 조사하기 위해 “배가 고프니 밥 좀 (어쩌면) 좋겠다”에서 ‘어쩌면’을 어떻게 말합니까?”라고 질문하면, 그에 대해 대부분의 제보자는 {‘먹었으면, 묵었으면, 묵었으면’} 등으로 답한다. 이것은 우리말에서도 가정법 현재는 과거형을 취한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그것은 어간과 어미 사이에 과거시제 어미가 들어있으므로 원래 조사하려는 방언형이 아니다. 과거시제 어미가 들어가지 않는 방언형을 얻으려면 어떻게 질문해야 할 것인가. “{절대로, 결코} ‘어간-으면’ 안 된다”가 그런 답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시행착오를 경험한 뒤의 일이다.

둘째, 절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언어현상을 관계 속에서 관찰할 수 있게 한다. 한국어학은 한국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그러나 한국어란 추상적인 언어의 명칭이며 자연어로서의 한국어는 크고 작은 방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점에서 한국어 연구는 크고 작은 한국

어 방언에 대한 연구의 총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어 연구라는 범주에 속하는 연구는 그 연구 대상 언어의 정체가 확실하지 않다. 어떤 연구는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어떤 연구는 서울 중심의 경기 방언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는 표준어와 서울 중심의 경기 방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인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한국어 전공자들도 한국어의 언어 사실에 대해 절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현대 한국어에서 동사의 어간말 자음소군으로 ‘ㄷ, ㅌ, ㄴ, ㄹ, ㄷ, ㄷ, ㅌ, ㅌ, ㄷ, ㄷ’[없-(無), 앉-, 앉-, 맑-, 삶-, 밟-, 핥-, 읊-, 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방언 조사를 하면 동사의 어간말 자음소군은 방언에 따라 그 종류와 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동남 방언과 서북 방언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언에는, [업썸도, 업쓰니]에서 보듯이, 자음소군 ‘ㄷ’은 없고 그 대신 ‘ㄷㅌ’이 있으며 서남경남 방언에는, [업서도, 업싱께나]에서 보듯이, 자음소군 ‘ㄷ’은 없고 그 대신 ‘ㄷ’이 있다. 그리고 전남 방언에는, 표준어 동사어간 ‘앉-(坐)’의 명령형 [양거라]나 [양저라]에서 보듯이, 자음소군 ‘ㅇㄱ’이나 ‘ㅇㄷ’이 있으며, 경남의 하위방언에는, 표준어 동사어간 ‘꺾-(折)’과 어미 ‘-어라, -으면’의 통합형인 [꺾꺼라, 꺾끄도]에서 보듯이, 자음소군 ‘ㅇㄱ’이 있다. 또 경북의 하위방언에는, 표준어 동사어간 ‘꺾-(搗)’과 어미 ‘-고, -지’의 통합형인 [꺾코, 꺾치]에서 보듯이, 자음소군 ‘ㅇㅎ’이 있다.

언어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표준어 동사어간 ‘이기-(勝)’와 어미 ‘-어도’의 통합형은 [이겨도]로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방언 조사를 해보면 그 경우에 대상 방언에 따라 [이게도]나 [이기도] 또는 [이가도] 등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동일한 환경에서 적용되는 음운규칙도, [이게도]가 실현되는 방언에는 ‘j-활음소화 규칙’과 ‘<여>의 축약 규칙’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기도]가 실현되는 방언에는 어미의 초성 ‘<어>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가도]가 실현되는 방언에는 어간말 ‘<이>의 탈락 규칙’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한 음운환경이라도 적용되는 음운과정은 방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셋째, 특히 소멸되어 가는 노년층 언어를 조사하여 보존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어학도로서의 사명을 다 하는 것이다. 한국어학도의 사명은 한국어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10년 이 지나면 전통적인 한국어의 대부분이 소멸될 시기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한국어를 우리가 수집하여 보존하지 않는다면 20년이나 30년 뒤에는 자연어로서의 이 시대 한국어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한 번 소멸된 언어는 다시 살릴 수도 없고 복원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소멸되어 가는 한국어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어학도가 수행할 가장 값진 사명이라 할 것이다.

## 2.2. 조사되는 방언이 가지는 의의

다음으로 조사되는 방언이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의 노년층에 대한 방언 조사는 자연어로서의 현대 한국어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사되는 방언은 소멸되어 가는 고유어와 고유표현을 그 내용으로 한다. 우리는 15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자연어가 어떠했는가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현재 남아있는 그 시기의 언어자료가 대부분 중부방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러한 언어 자료마저도 표기법의 제약으로 실제 언어 사실을 알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한국어 연구자들을 안타깝게 한다.

그러나 현대라고 하여 그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 생존하는 우리 세대들이 모두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현대 한국어를 알려 주는 자료는 거의 대부분이 표준어로 기록된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자연어로서의 현대 한국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표준어 “어디 가십니까?”는 동남 방언으로는 “어디 가십니까?”나 “어디 가니껴?” 또는 “어디 가능교?”라고 하며 서남 방언으로는 “어

디 가시요?”나 “어디 가지지라우?”라고 한다. 그리고 중부 방언의 하위방언인 충청 방언으로는 “워디 가세유?”라 하고 제주 방언으로는 “어디 감수파?”나 “어디 감네까?”라고 한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 방언으로는 “어디 가세요?”라 하며, 서북 방언으로는 ‘어드메 가심네까?’라고 하고, 동북 방언으로는 “어드메 가심니까?”나 “어드메 가심까?”나 “어드메 가심둥?”이라고 한다.

지금의 노년층에 대한 방언 조사는 바로 이러한 자연어로서의 현대 한국어의 실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의 의의는 조사되는 방언 자료의 역사적 의의가 된다.

둘째, 조사되는 방언은 한국어의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이다. 조사되는 방언 자료 즉 현재 노년층의 언어 자료는 앞 시기의 한국어 자료와 연속선상에 있다. 이에 반하여, 현재 젊은층의 언어 자료는 현재 노년층의 언어 자료와는 단절 상태에 있다고 할 정도로 이질적이다. 이 점에서 조사되는 방언 자료는 전통적인 한국어에 대한 공시적 연구와 앞 시기의 한국어사를 재구하기 위한 비교 방언론적 연구 그리고 비교 방언론적 연구 결과를 통한 복선적 한국어의 통시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표준어 동사 ‘젓-(攪)’이 어미 ‘-고’와 ‘-아도’와 통합할 때의 방언형은 ① 대부분의 동남 방언과 서남 방언, 중부 방언 중 충남 방언과 일부의 충북 방언, 그리고 동북 방언에서는 [적꼬] 또는 [전(:)꼬]와 [저서도]로 실현되며 ② 중부 방언 중 경기 방언과 황해 방언, 강원 방언 그리고 서북 방언에서는 [전(:)꼬]와 [저어도]로 실현된다. 그리고 ③ 동남 방언 중 경북 방언의 동해안 지역에서는 [적꼬]와 [저자도]로 실현된다.

이러한 자료는 현대 한국어의 공시적 기술에서 표준어 동사 ‘젓-(攪)’의 기저형이 크게 둘로 표시되어야 할 것을 말해준다. 즉 ①의 방언 지역어에서는 ‘젓-(攪)’이며 ②의 방언 지역어에서는 ‘정-(攪)’이다. 왜냐하면, ③의 방언 지역어의 ‘젓-(攪)’은 한국어 전체에서 보면 예외에 속하므로 현대 한국어의 공시적 기술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①과 ②의 방언 지역어가 가진

기저형 ‘젓-(攪)’과 ‘짱-(攪)’은 둘 중 어느 하나를 일반적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분포 영역이 넓기 때문이다.

한편 ①-③의 자료는 비교 방언론적 연구,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간말자음소의 재구에 모두 이용된다. 즉 표준어 동사 ‘젓-(攪)’의 방언형을 대조하면, ①-③의 방언 지역어는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어간은 자음소로 끝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경우에, 그 자음소는 ①-③의 방언 지역어에서 각각 ‘ㅅ’, ‘ㅇ’, ‘ㅈ’으로 실현된다. 이 사실은 표준어 동사 ‘젓-(攪)’이 앞 시기에는 ‘△’을 가진 \*젓ㅁ-(攪)이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젓ㅁ-(攪)의 어간말 자음소는 ①의 방언 지역어에서는 ‘△>ㅅ’의 변화를 거쳐서 ‘젓-’이 되고, ②의 방언 지역어에서는 ‘△>ㅅ, △>ㅇ; ㅅ>ㄷ; {ㄷ-ㅇ}>ㅇ’의 변화를 거쳐서 ‘짱-(攪)’되고, ③의 방언 지역어에서는 ‘△>ㅈ’의 변화를 거쳐서 ‘젓-’이 되었다고 설명된다.

현대 한국어의 발생지인 ③의 방언 지역어에 그 동사의 어간말자음소 ‘ㅈ’은 이러한 설명에 강한 설득력을 가지게 한다. 그런데 현재 ③의 방언 지역어에서 젊은층은 ‘젓-’을 사용하므로, 현재의 노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설명이 가지는 설득력은 꼭 약화될 것이다. 이 점에서 조사되는 노년층의 방언 자료가 가지는 의의는 언어학적 의의가 된다.

셋째, 조사되는 방언은 한국의 문화를 보존하는 무형 문화재다. 한 나라의 문화는 그것이 유형인 것이든지 무형의 것이든지 모두 그 나라의 언어로 표현된다. 그 문화가 전국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모든 방언에 공통된 어형이나 방언형으로 남아 있을 것이며 그 문화가 지역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해당 지역의 방언형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조사되는 방언이 언어 문화 이외의 문화를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제 중심의 방언 조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악’이나 ‘탈춤’, ‘줄다리기’, ‘소싸움’, ‘닭싸움’ 등 민속을 주제로 한 방언 조사 자료에는 민속 문화가 보존될 것이고 ‘친족명칭’이나 ‘농촌의 하루 생활’ 등을 주제로 한 방언 조사 자료에는 사회 문화나 생활 문화 등이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전통 복식’, ‘명절 음식’, ‘전통 혼례식’ 등을 주제로 한 방언 조사 자료에는 복식 문

화, 음식 문화, 결혼 문화 등이 보존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문헌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으므로, 현재 생존하고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해 두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는 영원히 잊혀질 것이다.

### 3. 방언 연구의 의의

이 장에서 서술하려는 방언 연구란 방언에 대한 언어학적 또는 방언학적 연구를 말한다. 2장에서 우리는 언어 문화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화를 포함하도록 방언을 조사할 때에 조사된 방언이 무형 문화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언어 문화를 제외한 민속 문화나 사회 문화, 생활 문화, 복식 문화, 음식 문화, 놀이 문화 등을 포함하는 방언 자료의 경우, 그 자료에 포함된 해당 문화 그 자체는 방언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해야 할 연구 대상이다.

예를 들어, 동신제(洞神祭)의 경우, 그 대상은 무엇이며 동신제를 지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주(祭主)는 어떤 사람이 되며 동신제를 주재하기 위해 제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신제의 절차와 방식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민속 문화의 내용인데, 이것들은 민속학자들이 해야 할 연구 대상이다. 이 점에서 언어문화 외의 문화를 포함하는 방언 자료에 대한 방언 연구의 대상은 그들 문화와 관련된 어휘가 된다.

방언 연구의 의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다. 첫째, 방언에 대한 지리 방언론적 연구는 한국어의 역사를 복선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 지리 방언론의 목적은 단어와 같은 언어의 요소나 규칙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것을 지도로 작성하고 지도에 나타난 서로 다른 방언형이나 규칙의 분포 관계를 언어 외적인 요인과 관련시켜 그 언어 요소나 규칙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준 한국어 ‘가루(粉)’의 방언형을 조사하면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루, 가로, 가리’를 포함하는 ‘가루’계와 ‘갈루, 갈리’를 포함

하는 ‘갈루’계 그리고 ‘갈기, 값’을 포함하는 ‘갈기’계가 그것이다. ‘갈기’계의 방언형은 경북의 서북부와 강원 동부지역에 분포하고 ‘갈리’계의 방언형은 경기 동북부와 경북 서남부와 그에 접한 경남 일부에 분포한다. 이 단어는 15세기에 간행된 『월인석보(月印釋譜)』에 ‘ᄃᆞᆫ(粉)’, ‘ᄃᆞᆫ로(가루로), ᄃᆞᆫ이라(가루이라)’로 나타나고 17세기의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에 ‘ᄃᆞᆫ(가루)’로 나타난다.

이들 방언형과 문헌의 예를 종합하면, ‘갈기’계를 가장 고형(古形)의 잔재로 보아 \*ᄃᆞᆫ/\*ᄃᆞᆫᄃᆞᆫ을 재구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대 한국어의 방언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 ‘ᄃᆞᆫ>ᄃᆞᆫᄃᆞᆫ>(a)ᄃᆞᆫ, (b)ᄃᆞᆫ, (a)ᄃᆞᆫᄃᆞᆫ>(a)ᄃᆞᆫᄃᆞᆫ, (a)ᄃᆞᆫᄃᆞᆫ, (a)ᄃᆞᆫᄃᆞᆫ>(가로, 가루), (a)ᄃᆞᆫᄃᆞᆫ>가리; (b)ᄃᆞᆫᄃᆞᆫ>(b)ᄃᆞᆫᄃᆞᆫ, (b)ᄃᆞᆫᄃᆞᆫ, (b)ᄃᆞᆫᄃᆞᆫ>갈루, (b)ᄃᆞᆫᄃᆞᆫ>갈리; {ᄃᆞᆫ/ᄃᆞᆫᄃᆞᆫ}>{갈/갈기}’ 지금까지 연구된 한국어의 역사는 대체로 중부방언을 중심으로 한 단선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둘째, 방언에 대한 구획론은 현대 한국어를 구성하는 크고 작은 방언 단위를 알려준다. 방언 구획론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방언의 체계적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방언 특징들이 있고 없음을 기준으로 하여 등어선(等語線)을 설정하고, 그들 등어선의 뚫린 등어선속의 굵기로써 대상 언어를 크고 작은 방언들로 구분하는 것이다.

방언에 대한 구획론의 결과에서 개별 방언론적 연구를 할 수 있고, 개별 방언론적 연구가 이루어지면 두 방언간의 대비 방언론적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언구획의 기준이 된 등어선속의 내용을 연구함으로써 현대 한국어의 방언들이 어떻게 분화되었는가를 밝히는 방언 분화론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방언 구획론은 개별 방언론과 대비 방언론 그리고 방언 분화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분야의 방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참으로 크다.

셋째, 방언에 대한 개별 방언론은 개별 방언에 대한 공시적이거나 통시적 언어 사실을 알려준다. 개별 방언론의 목적은 하나의 방언을 하나의 언어로 취급하여 일반 언어학 이론을 적용하여 공시적 언어 사실이나 통시적

언어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개별 방언의 구조와 거기에 적용되는 언어 규칙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으며, 그 방언이 어떤 변화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방언간의 대비 연구를 할 수 있다.

특히 개별 방언에 대한 정밀한 공시적, 통시적 연구 결과는 일반 언어학의 이론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고대 한국어의 자료가 부족한 우리의 경우에는, 고대 한국어 연구와 한국어 계통론의 전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방언에 대한 대비 방언론은 두 방언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준다. 대비 방언론의 목적은 두 방언이 체계면에서 가지고 있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방언 연구는 대부분이 개별 방언론적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어떤 두 방언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없다. 그 점에서 대비 방언론적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대비 방언론적 연구가 가지는 또 다른 의의는 그러한 연구 결과로 다른 방언 화자들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명사 ‘말’과 어미 ‘-이’가 통합하여 ‘마리[HL]’가 실현될 때, 동남 방언 화자들은 ‘말(馬)’을 생각한다. 그러나 동북 방언 화자들은 ‘말(語)’을 생각한다. 그것은 어간이 1음절인 경우에 경남 방언에서 ‘저조’는 경북 방언에서 ‘상승조’를 가지며 동북방언에서는 ‘고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세 방언 화자들이 이해한다면, 동북 방언 화자가 ‘마리[HL] 만쏘[HL]’라고 할 때에, 경남 방언 화자들과 경북 방언 화자들은 각각 ‘마리[LH](語) 만소[LL](多)’와 ‘마리[RH] 만소[RL]’로 이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동남 방언 화자들과 동북 방언 화자들 사이에 성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체로 광주(光州) 부근의 전남 방언 화자들은 자기의 형이나 형뻘 되는 사람에게 ‘하계’체를 쓴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언에서 ‘하계’체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는 적지만 ‘해라’체를 쓸 수 없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전남 방언 화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 적은 사람으로부터 ‘하계’체를 듣는다면,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통사론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화자가 전남 출신인 경우에, 그로부터 ‘하계’체를 듣고 순간적으로 느끼는 좋지 않은 기분을 자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비 방언론의 결과가 축적될 때에 한국어 방언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며 나아가서 한국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에서 대비 방언론적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다섯째, 연구 대상의 방언이 접촉방언이라면, 그 방언에 대한 접촉 방언론은 언어 변화와 언어 외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알려준다. 접촉 방언론의 목적은 인접하는 두 방언의 접촉과 간섭(干涉)에 의해 형성된 제3의 방언을 대상으로 간섭 내용을 찾아내고 간섭에 관여하는 언어 외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언 연구는 언어 변화의 기제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여섯째, 연구 대상의 방언이 계층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라면, 그 방언에 대한 사회 방언론적 연구를 할 수 있다. 사회 방언론은 언어 차이를 유발하는 사회적인 요인을 알려준다. 사회 방언론의 목적은 방언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연적 장애물이 없는 인접한 두 방언이 체계적인 차이를 가질 때, 그러한 차이를 사회적인 요인과 결부시켜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북 동북부 지역에는 인접하는 두 지역 농촌과 어촌이 있는데, 그들 지역 사이에 방언 차이를 일으킬 수 있는 자연적 장애물이 없는 데도 두 지역의 말이 큰 차이를 가진다. 농촌 지역어는 8모음소(/이, 예, 애, 으, 어, 우, 오, 아/)를 가지며 자음목록 중 ‘ㄱ’과 ‘ㅍ’이 음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어촌 지역어는 6모음소(농촌 지역어의 8모음소 중 ‘에’와 ‘애’, ‘으’와 ‘어’가 음소적 기능을 가지지 못함)를 가지며 ‘ㄱ’과 ‘ㅍ’도 음소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여, ‘살(肉)’과 ‘쌀(米)’를 모두 ‘살’로 발음한다.

또 농촌 지역어에서는 표준어 ‘-읍/습니까’와 ‘-으면’에 대해 각각 ‘-(니)이껴’와 ‘-으며(ㄴ)’가 사용된다(어디 가니이껴?, 저거 누 집이껴?, 막으며/

면). 그러나 어촌 지역어에서는 그것들에 대해 각각 ‘-능기요’ 또는 ‘-능교’와 ‘-으모(ㄴ)’가 사용된다(어디 가능기요/가능교?, 막으모/문). 두 지역어는 어휘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즉 표준어 ‘어린애, 머리털, 혀, 할아버지, 할머니, 시아버지’ 등에 대해 농촌 지역어에서는 각각 ‘얼라아, 머리끼, 혀, 큰아배, 큰어매, 아뻘’ 등이 사용되고 어촌 지역어에서는 각각 ‘알라아, 멀꺼딩이, 세, 할배, 함매, 아부임’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지역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서로 교류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 그 이유는 두 지역이 각각 ‘농촌’과 ‘어촌’이라는 데에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농촌과 어촌의 주민은 각각 ‘양반’과 ‘서민’의 후손으로서 각기 동일한 집단끼리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 방언론은 방언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언어 외적인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이웃하는 방언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상은 방언학적 연구와 관련된 방언 연구의 의의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 언어학적 연구와 관련된 방언 연구의 의의도 생각할 수 있다. 오랫동안 방언학과 일반 언어학은 대립적 관계를 지속해왔다. 일반 언어학자들은 방언학자들을 낯고 오래된 것만을 좋아하는 골동품 수집가에 비유했으며 방언학자들은 일반 언어학자들을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 추구하는 이상론자로 비유했다. U. Weinreich(1954)가 두 집단의 화해를 기도했으나 그 기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변형생성 문법론이 언어 이론의 중심이 된 이후 특히 구체음운론이 등장한 1970년대초에 이르러 방언은 방언학자의 관심 대상일 뿐 아니라 일반 언어학자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일반 언어학에서 언어학자들이 설정한 규칙은 그것이 화자들의 심리적 실재를 반영하는 것이 입증되어야 규칙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 화자들의 심리적 실재를 반영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대상 언어가 겪은 역사적 변화의 예인데, 그러한 예들은 자연어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어는 바로 방언이다.

이 점에서 일반 언어학적 연구와 관련된 방언 연구의 의의는 그것이 일

반 언어학의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실제적 증거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일반 언어학의 이론이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된다는 점에서도 일반 언어학에 대해 방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 4. 결론

현대 한국어의 전통적인 방언은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이 소멸될 단계에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방언은 선조들의 사고와 문화가 용해되어 있는 무형 문화재이며 오랫동안 그것은 대를 이어 전수되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시작된 1970년대 이후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대가족제도가 붕괴되면서 전통적인 방언의 전수는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결부시켜 지금까지 필자는 방언 조사와 방언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여 이 글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1. 방언 조사의 의의는 방언 조사자가 가지는 것과 조사되는 방언이 가지는 것으로 구별하였다.
  - 1.1 방언 조사자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방언 조사자는 방언 조사를 통하여 방언 조사 방법과 기술의 습득은 물론 그에 대한 이론을 창출할 수 있고, 절대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관계 속에서 언어현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소멸 직전의 노년층 언어를 조사·보존함으로써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어학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한다는 데에 있다.
  - 1.2 그리고 조사되는 방언이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조사되는 방언은 전통적인 어휘와 표현을 담은 자연어로서의 현대 한국어이며 그것은 한국어의 공시적·통시적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

이고 한국의 문화를 보존하는 무형 문화재이다.

2. 방언 연구의 의의는 방언학적 연구와 관련된 것과 일반 언어학적 연구와 관련된 것으로 구분하였다.

2.1 방언학적 연구와 관련된 방언 연구의 의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방언에 대한 지리 방언론적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된 것과 같은 한국어의 단선적 역사를 복선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방언에 대한 구획론은 현대 한국어를 구성하는 크고 작은 방언 단위를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방언에 대한 개별 방언론은 개별 방언에 대한 공시적이거나 통시적 언어 사실을 알려줄 뿐 아니라 한국어의 역사 특히 고대 한국어 연구와 한국어 계통론 연구를 위한 바탕을 마련해 줄 것이다. 또 방언에 대한 대비 방언론은 두 방언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줄 것이다.

한편 연구 대상의 방언이 접촉방언이라면, 그 방언에 대한 접촉 방언론은 언어 변화와 언어 외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알려 줄 것이고 연구 대상의 방언이 계층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라면, 그 방언에 대한 사회 방언론은 언어 차이를 유발하는 사회적인 요인을 알려줄 것이다.

2.2 일반 언어학적 연구와 관련된 방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방언 연구가 일반 언어학의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실제적 증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일반 언어학의 이론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金完鎭(1979), 「方言研究의 意義」, 『方言』 1.

李翊燮(1979), 「方言資料의 蒐集方法」, 『方言』 1.

- 李翊燮(1984), 『方言學』, 서울: 民音社.
- 鄭然燦(1980), 「慶南方言 音韻의 몇 가지 問題: 特히 固城·統營 地方을 中心으로」, 『方言』 4.
- 崔明玉(1980), 『慶北東海岸 方言研究』, 대구: 嶺南大出版部.
- 崔明玉(1982),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대구: 嶺南大出版部.
- 崔明玉(1990), 「東南方言의 聲調型과 그 分布」, 『제18회 國際學術大會論文集』, 大韓民國 學術院.
- 崔明玉(1993), 「語幹의 再構造化와 單一化 方向」, 『省谷論叢』 24.
- 崔明玉(1995), 「‘X | ]<sub>Vst</sub> 어 Y’의 音韻論」, 『震檀學報』 79.
-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91), 『韓國方言資料集(全羅南道 篇)』 6.
- Hooper, Joan B.(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Weinreich, Uriel(1954), “Is a structural dialectology possible?”, *Word* 10.
- Weinreich, Uriel(1968), *Languages in Contact: Findings and Problems*, The Hague: Mouton.